

Gary Meadors 박사,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세션 12, 성령의 역할

© 2024 Gary Meadors 및 Ted Hildebrandt

12번째 강의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GM 12이고, 이번에는 슬라이드가 적고 노트에 더 집착하기 때문에 노트를 꼭 앞에 두어야 합니다. 저는 몇 가지가 있는데, 슬라이드에서 가끔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정교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아요, 이제 목차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주관적 도전에 있습니다. 우리는 양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양심은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에 대한 증인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성령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매우 논란의 여지가 있는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다른 견해를 다루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성경이 성령을 성경을 판단하는 문제와 어떻게 연관시키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제 자신의 밝은 생각이 아닙니다. 사실, 제 밝은 생각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들은 연구의 결과입니다. 핸드아웃에서 참고문헌을 언급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에게 조금 더 많은 참고문헌을 제공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것들은 검색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 e러닝 전문가인 힐드브랜드 박사는 저작권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수업 끝에 참고문헌을 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물건을 거기에 둘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찾을 방법이 있다면, 더 많은 독서를 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12과, GM 12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성령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영성학, *pneuma*는 물론 바람과 호흡을 의미하는 단어이고, 영을 의미하는 명사가 됩니다.

삼위일체의 세 번째 인격인 하나님의 성령. 제가 삼위일체에 대해 말하고 싶은 것 중 하나는 삼위일체에는 질투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이 있습니다.

각각은 성경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미지화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다른 것들을 배제하고 하나만 본다면,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를 이미지화합니다.

물론 아버지는 아버지라는 단어와 매우 흡사하게 자신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신의 아들 예수는 삼위일체의 두 번째 인격이며 자신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의 세 번째 인격은 일종의 적용 측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여러 텍스트에서 이것을 언급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인도는 교회 시대에 있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첫 페이지.

우리는 요약 진술로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영 신학의 역사를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여러 텍스트와 그것들이 인도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저는 보통 긴 인용문을 제공하지 않지만, 저작권법 때문에 이런 기사를 수업에 그냥 넣을 수 없기 때문에 평소보다 조금 더 긴 인용문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존 머레이의 책 세트가 있습니다. 존 머레이는 프린스턴 신학교가 매우 보수적인 기독교 신학교였을 때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그들은 프린스턴을 떠났고, 이 중 여러 명이었습니다. 워필드도 한 명이었습니다. 그들은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을 세웠습니다.

따라서, 그는 나이 든 작가이고, 그는 Collected Writings라는 4권의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점은 많은 주제를 다루고 있고, 일반적으로 짧아서 너무 압도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여러 분야에 대한 매우 좋은 기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의지에 대한 아주 좋은 기사입니다. 존 머레이를 고전적인 의미에서 칼빈주의자로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학생들에게 자유의지에 대한 그의 기사를 읽게 했는데, 우리가 토론한 후에야 누가 썼는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그것에 매우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칼빈주의나 칼빈 또는 무언가라는 단어를 언급하면 꺼려합니다.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지, 그저 고정관념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 내가 준 노트의 첫 페이지에 인용문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에 대해 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이제, 그것은 큰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시는 어떻게 의미합니까? 서신은 어떻게 의미합니까? 그것이 무엇과 많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품과 함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지시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머레이가 계속 말했듯이, 성경은 유일하게 틀림없는 실행 규칙입니다. 이것의 당연한 귀결은 우리가 성령의 새로운 계시를 찾거나, 의지하거나, 요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와 영감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갇힌 시대에 살고 있으며, 성경을 발전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속받지, 그것을 창조하거나 계속 쓰지 않습니다.

. 이것의 당연한 귀결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계시를 찾거나, 의지하거나,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와 영감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이 증거하는 성경의 충분성을 우회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일에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특별한 계시를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것은 성경의 충분성을 훼손합니다.

성령의 작용을 그분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신 틀림없고 충분한 실행 규칙에서 추상화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이 오류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즉 성령으로부터 직접 정보를 얻는 것은 성령의 지시와 인도가 수단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제공하신 수단을 통해서입니다. 그분은 이미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 제공하셨고, 이것이 우리가 삶의 다양한 상황에서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분의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이라고 주장되는 직접적인 인상에 의한 인도의 개념은 인도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왜곡하고 콜로새 신자들의 경우 사도들이 기도한 것을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 본문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할 것이고, 그것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것이며 모든 것에 충분하다는 디모데후서의 인식을 훼손합니다. 이제 그것은 그의 책인 *Collected Writings*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그 기사는 1권의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이디어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영은 우리를 인도하지만 말씀을 통해 인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행하면서 양심과 영이 매우 유사한 방식을 가지고 있고, 때때로 우리의 내부 과정에서 구별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1페이지의 2/3 지점에 있는 소위 조명의 개념은 영의 내적 증거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는 증인으로서의 양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글쎄요, 우리는 증인으로서의 영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소위 깨달음이라는 개념은 영의 내적 증인이라고 부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몇 가지 구절을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8:16. 성령께서 직접, 첫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구절을 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직접 증거하십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양심으로 증인이라는 단어가 흔한 단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합니다. 그것은 구속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회심은 하나님의 기적이며,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네, 뭔가가 저에게, 저에게 일어났고, 이제 저는 주 예수님의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고 있으며, 그것이 제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점점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점에 대해 증거하셨고, 우리는 잠시 후에 범주별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5:10.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증거는 영을 가리킨다. 증거는 그 안에 있다.

성령은 요한 1서에서 성경의 증거를 가르쳤습니다. 로마서 5장.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다시 성경에서, 정신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요한 1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사실의 관점에서 이것에 대해 많이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요한 1서는 우리가 그를 믿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요한 1서에 구원에 대한 일종의 확신이 있지만, 그가 그것을 제시하는 방식에서 분명합니다. 흥미롭습니다.

좋아요, 성령에 대한 역사적 개요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로마 가톨릭 교회와 종교 개혁자들 사이에 권위 문제에 대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마 잘 아시겠지만, 로마 가톨릭에서는 교회가 궁극적인 권위를 행사하는데, 여기에는 성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권위도 포함됩니다.

그들의 구성은 말씀과 교회였지만, 말씀은 교회가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자체의 권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자들은 성경에만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신자는 성경을 연구하고 그 의미에 대한 결론을 내릴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교회라는 단어 대신 영이라는 단어로 바꾸었습니다. 영은 말씀을 증거합니다. 간단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칼빈 자신, 그리고 그런데 칼빈주의나 감리교 등등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세요. 칼빈을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그에 대해 하는 말을 듣지 마세요. 그러면 칼빈이 그의 추종자들보다 훨씬 더 이해하기 쉽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적어도 그를 읽어보세요. 칼빈은 교회라는 단어에서 영이라는 단어로 방정식을 바꾸었습니다.

개혁자들은 교회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새로운 권위를 가졌고, 모든 신자를 평탄한 지반에 올려놓는 하나님의 영을 가졌다. 그는 그것을 증언 교리라고 불렀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증언이라는 단어, 증언이라는 단어, 성령은 구원 안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성령은 우리에게 그 진리를 확신시켜 말씀에 대해 증거한다.

칼빈은 성령의 역할을 확신시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믿는 자의 마음을 확신시키는 단어에 밑줄을 긋고, 그것이 성경의 진실성과 권위에 관한 성경, 정신에 있는 것입니다. 칼빈은 그것을 말씀의 효과적인 확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믿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따르고 싶지 않은 본문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 본문은 우리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우리는 확신을 느끼십니까? 글쎄요, 우리는 두 가지 이유로 확신을 느낍니다.

양심, 만약 우리의 변화된 마음이 최신식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확신시킬 수 있다면, 그리고 저는 두 가지를 구별할 방법이 거의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인 판단자는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최종적인 판단자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의해 올바르게 자리 잡은 세계관과 가치입니다. 칼빈에게 이 효과적인 확인, 즉 영의 역할은 설득의 역할이었습니다.

설득이란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당신에게 설득하는 것을 의미하며, 당신은 그것을 꺼낼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할은 내용이 아니라 설득입니다. 성령은 이미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성경을 제공함으로써 내용을 처리하셨습니다.

내용은 성령이 증거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말해주는 지속적인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확신시키는 지속적인 사역을 합니다.

만족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Ram, Bernard Ram은 오래 전에 세상을 떠났고 성경 학자였으며, 신개신교 방법론에 대한 해석에 관해 많은 글을 썼습니다. *The Witness of the Spirit*은 그의 논문이었고, 책으로 출판되었고, 이 책은 *The Witness of the Spirit* 문제에 관한 가장 훌륭한 작은 책 중 하나입니다.

보세요, 영의 증인은 어떤 사람들이 깨달음이라고 부르는 것을 설명하는 공식적인 신학적 방법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깨달음은 어떤 의미에서 내용과 이해의 은유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야기하기에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이해는 사람들이 깨달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방식보다 이 영역에서 정의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신이 나를 밝혀주셨어. 글썄, 신이 당신을 성경에 대해 확신시켜주셨어. 어떤 사람들은 와서, 글썄, 신이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를 밝혀주셨어, 하지만 당신은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었어.

좋아요? 그러니까, 조명은 사람들에게 쇠지렛대처럼 사용되어 그들의 본문에 대한 견해를 얻는다. 하지만 조명이라기보다는 말씀에 대한 증거에 가깝다. 램은 칼빈을 요약했는데, 그 이유는 증언이 설득이기 때문이다.

알아두세요. 그게 확신이에요. 뭔가에 대한 설득이에요.

그것은 그 자체의 내용이 아닙니다. 증언은 게시된 내용이 아니라 게시하는 행동입니다. 그것은 소통이 아니라 조명입니다.

이제, 조명이라는 단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 용어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피하고 싶습니다. 이런 이유로 칼빈은 계시가 내용이라고 주장하는 열광주의자에 반대했고, 그것은 논란 중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워필드는 일찍이 기적에 대해 로마 교회와 논란이 있었고, 그것은 흥미로운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초기 구원과 전파 행위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시험관에 넣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그것은 내적인 확신입니다.

당신은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글썄요, 성령은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의 양심은 말씀을 증거하며, 이 둘은 모두 우리를 똑바로 유지하기 위해 우리와 함께 내부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내용은 없습니다.

그것은 확신입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이미 성경에 있기 때문이며, 그것이 우리가 연관시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감받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감받은 해석자가 없으며, 성령이 이것이 관점이라고 나에게 말했다고 주장함으로써 그 문제를 우회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성경의 경건하고, 동등하게 잘 훈련된 해석자 10명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들이 경건한 수준에서 모두 동등하다고 가정한다면, 그런데도 그들이 의견이 다르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글쎄요, 누가 옳은가요? 당신은 "맙소사, 나는 그런 문제를 원하지 않아"라고 말할 것입니다. 글쎄요, 그것은 신이 우리에게 주신 문제입니다. 이제, 그것은 우리 현실의 일부입니다.

똑같이 경건하고, 똑같이 훈련받은 개인들이 같은 본문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갖는 것은 사실이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의 결정의 일부입니다. 왜? 의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가 직면한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와서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글쎄요, 어떤 사람들이 시도했듯이, 순진하게도, 제 생각에는, 성경 해석이 도덕적 문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경건한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누군가는 부도덕하고 누군가는 도덕적이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걷고 싶지 않은 길입니다.

그것은 경건한 사람들 사이에서 성경과 관련하여 다양성이 있다는 사실의 문제를 설명하려는 나쁜 방법입니다. 당신은 잘못된 것에 대해 하나님의 영을 비난해야 하며, 물론 당신은 옳고 다른 하나는 틀렸습니다. 항상 그런 식입니다.

이런 생각에 대해 생각하는 나쁜 방법입니다. 그것은 설득이지 내용이 아닙니다. 증언 자체는 게시된 내용이 아니라 게시하는 행동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확신이 영과 양심의 일의 일부이며, 당신은 그것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둘 다 같은 일을 하고 있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성경의 마지막 말씀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칼빈은 내용이 있는 계시를 주장하는 열광자를 반대했습니다. 이것을 초기 구원과 설교 행위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은 성경에 있습니다.

이제 다른 텍스트들과 함께 그것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신학적 개요. 삼위일체와 관련된 성령의 증거.

알아차리시겠지만, 그것은 핸드아웃의 두 번째 페이지에 있고, 저는 눈이 너무 나빠서 그 작은 글씨를 읽을 수 없어서 다른 텍스트에서 읽고 있고, 그것은 여전히 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신학적 개요는 노트의 두 번째 페이지에 있습니다.

삼위일체와 관련된 성령의 증거. 성령의 역할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과 다른 곳에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영은 결코 그 자체로 목적으로 상상되지 않습니다. 영은 삼위일체에서 빌려온 사람이 아닙니다. 영은 아버지와 아들의 명령과 일을 합니다.

영의 역할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영은 결코 그 자체로 목적으로 상상되지 않고 목적을 위한 수단이며, 그 목적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증거하고, 메시아로서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합니다. 그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종이에 적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것은 확인되고, 어떻게 그런지 설명되지는 않지만,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인간 차원에서 내릴 수 있는 유일한 판단은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판단이며, 동시에 우리는

여전히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감받은 해석자를 주시기로 정하지 않으셨고, 오직 영감받은 성경에서만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존재하는 긴장을 볼 수 있습니다. 램의 이 인용문을 주목하세요.

성령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성찰은 그가 신격의 집행자임을 보여줍니다. 창조주와 창조물 사이에 형이상학적 또는 존재론적 연결에 대한 성경적 교리는 없습니다. 그는 우리와 분리되어 있으며, 창조주와 창조물 사이에 있습니다.

연결은 직접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 신성한 집행자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는 구원을 제정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실을 증거하고, 증거함으로써, 그것이 방법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우리의 비밀 무기입니다. 그것은 직접적인 연결입니다.

실례합니다. 제 눈이 좀 문제입니다. 신성한 집행자는 창조물과 피조물을 직접 만집니다. 하지만 집행자로서의 이 만지는 일에서, 양심처럼 내면에서 그는 자신의 행동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계획, 즉 신과 말씀을 실행합니다. 그는 자신을 넘어서 어떤 것과 관련하여 행동합니다. 그는 양심이 증인인 것처럼 증인입니다.

그는 요한복음 15:26을 증거하는 자이며, 그러므로 이 증거의 내용은 그 자신 밖에 존재합니다. 그 자신 밖에 존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본문에 대한 증거자이며, 당신에게 더 많은 본문을 주지 않으며, 솔직히 그 본문의 의미도 주지 않습니다.

그 가치와 해석의 필요성 측면에서 본문을 목격하는 것이 우리가, 그것이 멈추는 이유이고, 그것이 우리가 동등하게 훈련받은 경건한 사람들 사이에 이런 다양성을 갖는 이유입니다. 그는 아들에게 아버지의 선물이고,

제자들에게 아들의 선물이므로, 그는 다른 사람의 의도를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신학이 있습니다.

더욱이 그 신학에서 성령의 증거와 계시. 성령은 말씀에 증거합니다. 그들은 독립적인 증인이 아니며 경쟁 관계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한 참고문헌을 드렸습니다. 바라건대, 여러분이 그것을 조금 추적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그것은 그 아이디어를 얻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은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내용에 대한 증인이며, 여러분은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결국 결론은 판단을 내리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고 성경 해석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구원의 증인으로서 우리는 로마서에서 성령이 사람이 구원의 필요성에 대한 말씀의 진리를 인식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믿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이해시킬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무언가를 주장할 수 있고, 그들을 목마르게 할 수 있지만, 그들이 생명의 샘에서 마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충분히 목마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라는 비밀 무기가 있어서 그 본문의 진실을 확신시킬 수 있다면, 그래서 저는 전도할 때 그들에게 그 구절들을 읽게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인용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들이 읽게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사람의 눈을 통해 그것이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영의 증거와 해석.

물론, 여기서 많은 논란이 생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영은 성령과의 관계를 유지합니다.

우리 모두는 관계를 유지합니다. 여기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글썄요, 충만이라는 단어는 은유입니다.

도르가스는 선행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즉, 도르가스는 선행으로 특징지어졌다는 뜻입니다. 특징지어졌다는 단어를 채웠다는 단어로 바꾸면 그 은유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확신시키는 가르침으로 특징지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성령을 더 많이 얻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성령의 것들로 특징지어지는 것이고, 성령의 것들은 본문 그 자체입니다. 모든 신자는 성령과의 관계를 유지합니다. 일반적으로 조명이라고 불리는 것은 성령이 신자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복종할 수 있는 능력을 행사하도록 돕는 거듭남의 혜택입니다.

우리는 개종하기 전에는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옛 본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옛 본성을 따릅니다. 개종은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 새로운 특성의 구성을 줍니다.

이제 우리는 옛 것보다는 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옛 것과 새 것 사이의 싸움에 뛰어듭니다. 성경의 의도된 의미를 평가하는 실제 과정은 해석학의 과제입니다. 해석의 과제입니다.

이러한 의도된 의미를 드러내는 능력은 해석자가 성경을 적용하고, 해석학의 과학과 예술을 적용하고, 성경이 실제로 가르치는 것에 복종할 의지가 있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은 내용을 전달하지 않고, 새로운 계시도 전달하지 않으며, 계시를 해석하지도 않습니다. 성령은 해석자에게 새로운 내용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은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해석자가 평가되는 가르침에 복종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통역자가 자신의 전제가 작용하도록 허용하지 않도록 확신시키기 위해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통역자가 말씀을 해석할 때 그들을 인도하는 창조적인 구성물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웨슬리안인 I. Howard Marshall과 칼빈주의 전통의 John Murray와 같은 주요 대표자들을 함께 모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구절에 대해 다른 결론에 도달할 것이지만, 그들은 여전히 함께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것은 인간 경기장의 일부입니다. 신은 그것을 극복하도록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그 긴장감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그 다양성을 남겨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갇히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고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다른 길을 갈았던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조화를 이루어 살아야 합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같은 범위에 있는 한, 그 과정에 대해 옳음보다 더 많은 것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통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주요 정통적 문제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노트의 다음 페이지, 맨 아래, 아니면 2, 3페이지에 행위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살펴볼 항목의 참고문헌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상상할 수 있듯이, 이 모든 것을 풀어내는 데 많은 에너지가 주어졌습니다.

크레이그 키너는 주요한, 아르미니우스주의적 방향입니다. 그는 많은 문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마 여기 있을 테지만,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주로 사용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 할 수 있죠, 여러분만의 전통이 있으니까요.

당신은 그 관점에서 그것을 해결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당신은 그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당신은 영이 이것이 진실이라고 말했다고 그냥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성경은 무엇이 진실인지 말해줍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해 확신하지만, 그 확신은 우리가 인식하고 해석에 적용하기로 선택한 패러다임 내에서 작동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공동체의 다양성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것을 없애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신자 공동체에서 신이 정한 것이기 때문에 없앨 수 없습니다. 신이 왜 그런 식으로하기로 선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주권에 절해야 하고, 어떤 이유에서든 그분이 영감을 받은 해설을 주는 것보다 더 나은 접근 방식으로 여기신다는 사실에 절해야 합니다. 비유적으로 바벨탑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이고 신학도 있지만, 저는 본문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실례합니다. 2장 6절에서 16절까지 보세요. 제가 드린 Walter Kaiser 기사가 있는데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Biblically Learning 사이트에 올려서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저는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의 이런 종류의 공유에 대한 규칙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내면, 저는 여러분과 공유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감수하겠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공개 사이트에 올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여러분이 읽어야 할 매우 중요한 기사입니다. 좋아요, 이제 이 구절,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살펴보시면,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1장에서 4장은 바울의 변명입니다. 미안하다는 의미의 변명이 아니라 증거라는 의미의 변명입니다.

고린도인들은 바울의 복음 메시지에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반발하며, 보세요, 이건 제 멋진 생각이 아닙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1~4장의 분수령 본문인 2장 6~16절에서 그것을 절정에 이르게 합니다.

2:1에서 5까지 보면, 형제여, 내가 너에게 왔을 때, 그리고 거기를 내려다보면, 나, 너, 나, 너, 나, 너, 나, 너. 그리고 3장 1절로 가면, 나, 너, 나, 너, 나, 너. 하지만 2장 6절에서 16절까지는 나, 너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나인가, 당신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많은 해설자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것은 카이저 자신의 훌륭한 아이디어가 아니다.

그는 이전 주석가들과 본문을 평가하는 사람들에 대한 의존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상식적인 부분입니다. 그는 우리로 바꾸었는데, 6-16절에서 말할 때 사도 공동체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는 사도로서의 권위를 봉인하여 그들이 믿어야 할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절정은 10절에서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고 말합니다. 계시는 다른 모든 것을 능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계시된 진실입니다. 그것은 권위 있는 진실입니다. 우리는 양심의 증거와 그 진실에 대한 영의 증거를 얻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주의하세요. 우리는 지혜를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완전히 성장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우리는 허무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곳에서 그 통치자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지식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이해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주는 것은 성경을 올바르게 읽을 수 있는 우리의 개종 경험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경의 의미를 알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성경이 독자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성경은 텍스트 중심입니다. 성경의 의미는 성경에 있습니다. 독자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비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심지어는 세상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미리 정해 놓으신 숨겨진 지혜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보고 귀로 듣고 사람의 마음에 들어온 것, 곧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했듯이 그 구절은 천국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식론에 대한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에게, 그 계시하는 공동체에게, 우리는 그들을 사도와 선지자라고 부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영을 통해 계시하셨습니다.

사도들과 함께 하는 성령의 일은 계시적인 것이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주시하십니다. 사람이 아는 자들에게는 온갖 비유를 쓰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습니다. 우리는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영을 통해 나타내신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말하지 않고 영이 가르치는 말로 말하는데,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말과 합합니다.

이제, 이 텍스트에는 여러분이 이야기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한 가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그의 말씀을 주셨다는 확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권위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그의 설교에서 권위 있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누구의 복음이 올바른 복음이고 무엇이 법정에 있는지와 관련하여 트럼프 카드입니다.

좋아요. 그런데 이 글은 종종 그 깨달음의 개념에서 쓰이곤 합니다. 마치 제게 적용되는 것처럼요. 아니, 저 아니에요.

나, 당신이 아닙니다. 우리, 즉 사도 공동체,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리를 성경 구절로 옮기기로 선택하신 계시 공동체입니다. 저는 그것이 이 본문의 가장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이 논의에서 핵심이 되는 한 가지 부분입니다. 그리고 Kaiser의 기사는 그것을 훨씬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 8장 14절의 확언은, 로마서 8장 14절과 갈라디아서 5장 18절을 잠깐 살펴보면, 이 강의는 우리가 이 본문들을 살펴보기 때문에 꽤 많이 다를 것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지만, 이것은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슬라이드에 넣어야 했을 겁니다.

로마서 8:14. 우리는 문단이 시작되는 12절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형제여, 우리는 육신에 빚진 자가 아니요 육신에 따라 사는 자가 아니니라 .

우리가 육신에 따라 살면 여러분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여러분은 살 것입니다. 영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말씀을 적용함으로써.

영에 이끌리는 자는 다. 그것은 은유입니다. 이끌린다는 단어는 은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에 의해 인도됩니다. 그러니, 당신은 그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영에 의해 인도됩니다. 직접적인 의미가 아니라, 성경을 따르도록 확신시키는 의미에서 말입니다.

납이 은유로 쓰인 곳은 두 군데뿐입니다. 하나는 로마서 8장, 또 하나는 갈라디아서 5장 18절입니다. 우리는 영의 인도를 받아 영의 열매를 맺고 육체의 행위를 거부하고 피합니다.

따라서 led는 은유입니다. 사실, lead가 성화의 은유라고 지적하는 기사가 몇 개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의 성화에서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성화는 적용, 확신이며, 내용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해석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 내용을 우리 자신의 내면적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우리 자신의 내면적 과정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두 텍스트에서 내가 말했듯이 led는 성화에 대한 은유입니다. 그것은 성경 외의 어떤 과정에 대한 신비로운 부름이 아닙니다. Warfield는 영의 인도에 대한 기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기사는 그것을 매우 잘 설명합니다.

세 번째, 다락방 담화. 이것은 많이 주장됩니다. 이것은 예수가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지상에서 보낸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들은 유월절을 기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식사를 했는지 여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지만, 그들은 확실히 교제하고 있으며,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맥락에서, 우리는 요한복음 14:26에서 매우 흥미로운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26. 이것들은 직접적인 계시에 대한 증거 본문으로 사용되지만, 그것은 맥락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26.

이것을 알아차리면, 보혜사, 즉 성령,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글썄, 너는 누구인가? 여기는 다락방이다. 예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그는 성경 비율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계시의 핵심이 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바울과 누가처럼 거기에 없었던 사람들이 쓴 것도 있지만, 우리는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과 셋째 하늘로 부름을 받는 것과 관련된 바울의 답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설명을 받았고, 바울은 누가의 멘토였습니다. 사실, 교부들은 마가에 대해 매우 민감합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였고, 루가는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그들의 정보는 베드로와 바울에게서 왔습니다.

그것은 *sui generis*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유래하지 않았습니다. 초기 교회가 마가와 누가에 대한 진술에서 항상 베드로와 바울을 언급했던 것은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락방 담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좀 되짚어 보면, 저는 이 사람들이 복음서를 만들고, 예수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정확하게 재현한다는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복음서에는 이야기할 것이 많고, 복음서의 기록에 있는 다양성도 있고, 다른 시간에 다른 방식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좋아요, 16:13. 여전히 위층 방에서 담화 중입니다. 16:13.

미안합니다, 제 눈입니다. 어때요? 진리의 영이 오면, 그는 여러분을 모든 진리 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지만, 저는 그들이 맥락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인도하라'는 제자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진리로 인도하라, 그러나 그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그가 감당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말할 것이며, 그는 장래에 일어날 일을 너희에게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공동체와 그것이 대표하는 공동체에 대한 또 다른 약속이 있습니다.

1526은 또 다른 하나입니다. 1526.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또한 그가 나와 함께 계셨으므로 증거하시리라.

그러니까, 증거하는 문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약속들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계시해 주거나 심지어 모든 것을 우리의 마음에 떠올리게 해 주겠다는 약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4절의 그 구절은 시험 전에 기도하라는 구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공부한 것들을 당신의 마음에 떠올리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공부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당신이 들은 모든 것들을 떠올리게 해 주시지는 않을 겁니다. 알겠어요? 당신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저 농담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과 청중의 맥락에서 핵심 본문은 사도들과 사건이나 말씀의 기억을 보존하고자 하는 사람들인 제한된 집단에게 적용됩니다.

이것은 그저 누구에게나 계시를 약속하는 일반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대표자들을 통해 우리가 마침내 그가 원하는 것을 얻도록 하는 묘사적인 측면입니다. 여기에 매우 남용되는 또 다른 텍스트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6절과 27절. 이 부분을 살펴봐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6절과 27절.

이제,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우리가 베레안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나가서 스스로 숙제를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있고, 제가 그렇게 한 방식과 제가 온 조건, 그리고 여러분의 반응은 베레안이 그것을 확인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것 들어보세요. 요한일서 2장 26절과 27절. 글썄요, 저는 사람들이 이것 제게 던지는 걸 들었습니다.

24절. 요한은 자신이 멘토링한 청중에게 말한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대로 너희 안에 거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마도 요한이 그들의 회심에 대해 멘토링하고 가르친 것을 말하는 듯하다. 그리고 이것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 곧 영생이다.

이런 일들은 너희를 그릇된 길로 인도하려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에 침입자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요한이 이 사람들을 구출하려고 하는 또 다른 청중을 가지고 있다.

27절. 그리고 너희에게, 너희가 받는 기름 부음은 무엇인가? 내가 그것을 설명하겠다. 그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므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치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에 관하여 너희에게 가르치고 참되고 거짓이 없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과 같이 너희는 그 안에 거하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7절은 너희에게 교사가 필요 없다는 것을 버렸습니다.

글쎄요, 그럼 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어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대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보세요, 선생님이 필요 없다고 말한다면 성경과 모순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체적으로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름부음은, 글쎄요, 그게 뭐죠? 글쎄요, 저는 그것이 요한이 그들에게 가르친 것이 사실이라는 확신 속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그에게서 받은 것, 그리고 당신은 아무도 당신을 가르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한 단어를 더함으로써 당신의 이해 속에서 이 전체 맥락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27절에서 알아차리면, 당신은 다른 사람이 당신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20절에서, 24절에서 시작해서 따라간 구절로 돌아가서, 26절에서 그들을 가르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이 그들에게 가르친 것과 다른 무언가. 요한이 돌아와서 말합니다. 잠깐만요, 내가 가르쳤을 때, 당신은 확신을 얻었고, 예수를 믿도록 기름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 글이 쓰여지기 전의 일이에요. 이건 그들이 곤경에 처한 후에 쓰여졌고, 그는 그들에게 편지를 써야 했어요. 그는 말했어요, 그들의 말을 듣지 마; 너는 기름부음을 받았어; 내가 그것이 사실이라고 가르쳤을 때 너는 유죄 판결을 받았어.

왜 그걸 포기하겠어요? 다른 사람이 가르쳐 줄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그 글을 주의 깊게 읽어야 해요. 선생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선생님들이 당신에게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옳고 당신에게 주어진 가르침을 어지럽히고 왜곡하는 선생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Upper Room Discourse, 요한 1서에 대한 한 가지 이슈가 더 있고, 중요한 이슈가 하나 더 있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이것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노트를 조금 읽어봐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콜로새서 1장에서 바울은 문맥에서 벗어나는 흥미로운 진술을 천 번이나 합니다.

그리고 여기 콜로새서에서 진짜 문제는 우리가 내가 바울의 종교적 언어라고 부르는 것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많은 은유를 사용합니다. 그는 그곳에 직접 가본 적이 없어서 새로운 것을 소개하지 않지만, 에바브라는 아마도 바울의 지도 아래 교회를 세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콜로새서 1장 9절 이하를 American Standard Version 1901에서 읽습니다. 매우 공식적인 버전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도 그것을 들은 날부터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여 여러분이 충만함을 얻게 하옵소서.

좋아요, 무엇이 채워졌나요? 채워진다는 것은 은유입니다. 더 많이 얻는 것이 아니라 특징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의지에 대한 지식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식을 얻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 특징지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맥락의 요점은 그것이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화 대화의 한쪽 끝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팀으로부터 기독교 진리의 기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것을 실천하고, 특징지어지고, 모든 영적 지혜와 이해력으로 그의 뜻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해지기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기쁘게 하기 위해 주님을 합당하게 걷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고, 힘을 얻고, 감사하는 것 등입니다. 그래서 콜로새서에는 이야기할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는 콜로새서에 대한 강좌를 독점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시간을 들여 말할 수 있는 요점은 바울이 콜로새서에서 그들에게 말할 때, 그는 그들이 받은 가르침에 따라 살아서 특징지어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속도를 위해 노트를 주목하세요. 9절 b의 인지적 차원에서, 저는 당신의 페이지를 같은 페이지에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4페이지, 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눈치채셨다면, 제가 이것의 일부를 당신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알다시피, 더 쉽고 빠르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방금 언급한, 채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 은유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무언가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더 많이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은유는 당신이 가득했던 것으로 특징지어집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의 도르가는 선행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선행, 이런 행위로 특징지어집니다.

에베소서 5:18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성령을 더 많이 얻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5:19-21에 언급된 성령의 특성으로 특징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무언가로 충만해진다는 것, 그리고 골로새서 1:9에서 충만해진다는 것은 그 대상의 내용, 즉 그들이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영의 기름부음이 그들을 책망한 것으로 특징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이 내용을 주었고, 성령께서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그들에게 확신시키셨습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얻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그것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당신이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저자는 더 높은 수준의 증명을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특징지어지라고 말할 때,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당신은 이미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 팀이 당신에게 잘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침에서 끌려나가지 말고, 그것으로 특징지어지세요.

당신의 삶에서 그것을 실천하십시오. 다음 문단. 이제, 당신은 그분의 뜻에 대한 지식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채우기 위한 목적이 제공됩니다. 당신은 그분의 뜻에 대한 지식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지식을 얻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당신이 가르침을 받은 지식으로 특징지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관련하여 성숙해지라는 부름이며, 우리가 앞서 본 하나님의 뜻을

아는 팀과 비교됩니다. 바울의 영성에 대한 표현은 그가 여기서 사용하는 진부한 표현입니다.

저는 그것을 바울의 종교적 언어라고 부르고, 만약 당신이 그 은유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모든 것을 놓치고, 당신만의 신학을 만들어냅니다. 바울은 청중을 어떤 종류의 호브 앤 조이 경험, 그 형언할 수 없이 악의적인 영역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는 청중을 그런 곳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는 항상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그의 말씀을 맥락에서 추론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것이라는 우리 자신의 경건한 생각으로 그가 말하고자 하지 않은 것을 만들어냅니다. 아니요, 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책임은 그가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글쎄요, 여기에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지 않겠지만, 여러분은 스스로 볼 수 있을 겁니다. 핸드아웃의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4페이지 하단에서 마지막 페이지 끝까지입니다. 이것의 결론은 바울의 영성 언어가 바울이 영성의 인식론을 본질적으로 객관적이라고 보았는지 주관적이라고 보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확실히 주관적인 측면이 있지만, 저는 바울과 다른 신약 저자들에 대한 신중한 해석이 영성의 기초적인 측면이 객관적인 영역에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 가상 조언 목록은 객관적입니다. 그것은 창조적인 구성물입니다. 제 말은, 사랑이나 인내심의 그림을 그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들은 설명적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관점에서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성을 정의하는 자료는 명제적 진실입니다. 성경 속 영성의 기능은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합니다. 몇몇 텍스트가 있습니다.

알라는 부르심, 채워지라는 부르심은 신비로운 지식이나 더 많은 지식을 얻으라는 부르심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계시적 데이터베이스에 참여하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들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쓴 것 중 일부나 다른 것들의 사본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살아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선생님들에게 의존했습니다. 오, 알다시피, 신약 성경에는 선지자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고, 저는 그들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들이 있다고요. 사도들의 수는 제한적이었지만, 선지자는 영감을 받은 설교자였습니다. 말하자면, 선지자는 사도들이 가르친 것을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더 많았던 셈이죠.

그리고 그들은 사도들로부터 배운 것을 권위 있게 가르치는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좋아요. 글썄요,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많은 것들 때문에 제 머릿속에는 너무 많은 것이 빙빙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성령의 역할은 내용의 전달이 아니라 확신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풀어본 텍스트가 그것을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성령의 역할은 믿는 사람을 내적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 여러분이 계속 공부하시기를 바라며, 철저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역에서 본문을 살펴보면 성령의 사역은 말씀과 관련하여 우리를 확신시키는 것입니다.

문맥은 보통 성령이 관련시키고 확신시키는 성경적 가르침이 이미 존재함을 암시합니다. 성령은 독립적인 역할을 하지 않지만, 믿는 이에게 말씀과 순종의 필요성에 대해 확신시키는데, 이는 그가 죄인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성을 확신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은 성령이 사도들 안에서 일하여 말씀을 생산하도록 보장하고 믿는 이에게 알고 순종할 필요성을 확신시킨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성령 신학의 증거에 의해 정의된 매개변수 내에 있습니다. 성령은 말씀과 관련하여 확신시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성령에게 일할 무언가를 주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제, 저는 그것이 어느 쪽이든 대부분의 신학적 전통에 신성한 영역의 꽤 큰 덩어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성령의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하기 시작하도록 자극했기를 바랍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 인용한 것들을 읽어보세요. 다른 것들도 읽어보세요.

당신은 스스로 이것을 평가해야 합니다. 당신은 이런 문제들을 손가락으로 먹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작업과 제가 생각한 것들을 통해 개인적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에 대해 확신을 준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영감받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감받은 해석자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끄는 해석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명백하고 분명한 것들을 증거하며 남은 인생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 어려운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요. 베드로가 말했듯이, 바울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을 씁니다.

그러니 신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강의는 섭리의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강의보다 더 간략할 것입니다.

이건 좀 길었어요.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